

어머니 부재가 딸에게 끼친 영향: 구약의 딸에 대한 어머니 역할 연구*

박유미(안양대)

1. 들어가는 말

2020년 성착취 동영상 범죄로 온 나라가 분노에 휩싸였다. 그런데 이런 성착취 동영상 범죄를 비롯한 성범죄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뿌리 깊은 남성 연대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¹ 그동안 여성 대상 성범죄에 대해 피해 여성의 관점과 여성의 관점에서 사건을 보고 판결하기보다는 남성들의 관점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해석하고 판결하면서 성범죄를 가벼운 범죄로 보는 풍토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동안 한국 사회는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의 문화 속에서 남성 연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과제번호)(NRF-2020S1A5B5A17088942).

1 남성 연대에 대해서 최란은 남성 집단의 일원으로 승인받기 위해 끊임없이 남성성을 증명하고 그 방법은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면서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2019년에 일어난 '정준영 카톡방 사건'은 남성 연대의 전형적인 예이다. 최란, "온/오프를 넘나드는 남성연대와 성폭력", 「여성이론」 제40호(2019), 216-217.

대가 강하게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남성의 이익을 강화해 왔다. 반면 여성들은 범죄의 피해자이며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자신의 피해를 말하지도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도 못했으며 피해에 대한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016년 강남역 여성 혐오 사건 이후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n번방 사건에서는 여성들이 연대하고 피해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적극적으로 여성들이 여성의 문제를 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그리고 이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연대하며 엄정한 조사와 무거운 처벌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런 목소리에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고 호응하며 이 사건은 과거의 여느 사건들과 다르게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여성의 사건에 여성이 참여하고 연대하는 것은 사건을 보는 관점을 바꾸고 해결 방향을 바꾸게 한다.

그런데 아직까지 교회는 남성 목회자를 중심으로 한 남성 연대가 매우 강하기에 여성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 남성들은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또한 여성에 대한 성범죄가 일어나도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 사건을 해결하고 회복시키는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남성 목회자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² 이런 현상은 성경에 여성 연대의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기도 하고 해석자들도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구약에서 여성이 성폭행당한 본문(창 34장, 사 19장, 삼하 13장)에서 여성을 위한 여성 보호자들이 등장하지 않고 여성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남성 보호자도 없다는 사실이 관찰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

2 대표적인 예로 심각한 성적 물의를 일으킨 전병욱 씨의 경우 아직도 교단과 노회와 교회의 비호 속에 합동 교단 목사로 활동하고 있다.

런 현상을 자세히 살펴보고 싶어하고 한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존재도 의미가 있지만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사람의 부재 그것도 공통적 부재 현상도 해석이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곤란에 처한 아들을 돕는 어머니의 모습을 살펴보고 어머니가 아들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밝히고 곤란에 처한 딸에게도 그녀들의 입장과 이익을 위해 도와줄 보호자가 있었다면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생각해보려고 한다.

그런데 그동안 구약 학계에서 어머니와 아들에 대한 연구들은 많이 되어왔지만 어머니와 딸의 관계에 관심을 갖는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또한 어머니의 부재에 대한 연구도 전혀 없다. 다만 본인의 이전 연구에서 성폭력 사건들에서 어머니가 부재하다는 사실을 언급하였었다.³ 구약에서 어머니와 딸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없는 것은 구약에서 어머니와 딸에 대한 내러티브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딸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에서 딸이 나온 본문에서 어머니가 부재하다는 사실에 학자들이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구약에서 어머니와 아들에 대한 연구와 불임 어머니와 아들 출산에 대한 연구⁴는 많이 되었다. 하지만 어머니와 아들의 연구인 경우는 어머니에 대한 개별적인 인물의 연구가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⁵

3 박유미, “성폭력, 개인의 문제인가 사회적 문제인가? 구약의 ‘여성 성폭력-전쟁’의 패턴에 대한 연구”, 『구약논단』 70 (2018), 140.

4 쉐릴 엑섬, 『산산이 부서진 여성들: 페미니즘 비평으로 본 성서의 여성들』, 김상래 외역 (서울: 한울출판사, 2001).

5 편집부, “성서와 설교/성서의 숨결(구약) 한나의 기도, 그 힘: 창세기 38장 24-25절,” 『기독교 사상』 49(2005), 124-131. 존 맥아더, 『하나님이 선택한 비범한 여성들』,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1). 하성애, “새로 읽는 하갈 이야기”, 『한국여성신학』 48(2002), 7-23.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엮음, 『새롭게 읽는 성서의 여성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김주환, “왕위 계승 문제와 해석 가능성에 관한 고찰”, 『대학과 선교』 4(2019). 김정우, “기적을 일으키는 엘리사의 사역(왕하 4:1-44)”, 『헤르메네이아 투데이』 21(2002), 63-76. Tammi J. Schneider, *Mothers of Promise- Women in the Book of Genesi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8).

하지만 최근엔 아들과 관련된 어머니의 역할과 기능이나 유형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에드워드 브리지(Edward J. Bridge)는 어머니의 이름 짓는 것을 통해 어머니가 가정 내에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고⁶ 크리스토퍼 제로(Christopher Jero)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 나온 세 어머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들 이야기를 이스라엘 역사를 읽는 전형으로 해석하였다.⁷ 어머니와 딸에 대해 언급한 학자는 에스더 폭스(Esther Fuchs)가 유일한다 그는 어머니와 딸의 관계의 주제는 성경적 이야기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며 어머니의 존재는 아들의 정체성과 중요성에 달려있다고 지적한다.⁸ 이렇게 딸과의 관계 속에서 어머니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을 언급할 뿐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하는 어머니의 부재에 대한 신학적 배경이나 이유와 어머니의 부재로 인한 문제점 혹은 딸이 받는 불이익에 대한 연구는 진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연구를 통해 첫째는 구약 성경은 어머니를 아들을 위한 존재로 그리고 있다는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특징을 드러내려고 한다. 둘째는 이런 구약 성경의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 특징을 어떻게 현대 사회 속에 적용할 수 있을지 그 대안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교회의 남성 중심적 가부장제 관행에 제동을 걸고 여성의 관점과 여성에 대한 연대의 중요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딸들이 곤란에 빠진 내러티브(창 34장, 삿 19장, 삼하 13장)와 아들과 어머니가 나오는 내러티브(창 21장, 창 27장, 왕상 1장, 왕하 4장)

6 Edward J. Bridge, "A Mother's Influence: Mothers Naming Children in the Hebrew Bible", *VT* 64 (2014) 389-400.

7 Christopher Jero, "Mother-Child Narratives and the Kingdom of God: Authorial Use of Typology as an Interpretive Device in Samuel-Kings", *Bulletin for Biblical Research* 25.2 (2015), 155-169.

8 Esther Fuchs, "The Literary Characterization of Mothers and Sexual Politics in The Hebrew Bible", *Semeia* 46(1989), 164.

를 연구 범위로 삼고 내러티브 해석 방법을 사용하여 본문에 대한 읽기를 통해 어머니의 부재와 존재가 딸과 아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딸이 곤란에 빠진 본문은 선행 연구와 연결하여 성폭행 본문을 선택하였고 아들과 어머니의 본문은 디나 사건이 일어난 즉장시대인 창세기에서 두 본문(창 21장, 27장)을 선택하였고 다말의 사건과 비교하기 위해 왕정시대의 어머니와 아들이 나타나는 두 본문(왕상 1장, 왕하 4장)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왜 구약에서 어머니는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등장했는지 성의 정치학적 관점과 신학적 관점에서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결론에서 신약의 예를 통해 여성을 위한 연대의 필요성을 주장할 것이다.

2. 곤란에 빠진 딸과 어머니의 부재 현상

구약에서 여성이 성폭행당하거나 죽임을 당한 본문에서 공통적으로 여성 보호자가 등장하지 않는 것이 관찰된다. 이 글에서는 성폭행 사건이 나오는 세 본문(창 34장, 삿 19장, 삼하 13장)을 살펴보면서 어머니로 상징되는 여성을 위한 보호자 부재 현상을 살펴보고 어머니의 부재가 성폭행당한 딸과 사건 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1) 세겜의 성폭행 사건(창 34장)

창세기 34장의 세겜 성폭행 사건은 야곱과 레아의 딸인 디나가 세겜으로 구경을 나갔다가 세겜에게 잡혀 성폭행당한 것이다. 성폭행 이후 세겜은 자신의 힘과 권력을 이용하여 디나를 잡아두고 아버지를 시켜 디나와 결혼하겠다고 요청한다(8절). 하지만 디나의 아버지 야곱은 이 일에 침묵하였고 디나의 남자 형제들은 이 일을 빌미로 세겜의

www.kci.go.kr

모든 남자를 죽이고(25절) 그들의 재물을 빼앗고 자녀와 여자들을 노예로 삼는다(29절). 그리고 야곱은 아들들의 행동에 화를 내고 끝난다. 여기서 성폭행 피해자인 디나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는다. 이것은 그녀를 둘러싼 남성들 누구도 피해 당사자인 디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⁹ 디나의 남자 형제들은 디나로 인해 자신들이 받은 치욕에 대한 복수와 세겜의 재물을 빼앗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다. 그렇기에 성폭행당한 디나의 회복을 위해 어머니 레아와 의논하거나 디나의 의견을 묻는 대신 형제들끼리 의논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 물론 야곱이 그들의 행동을 질책할 때 그들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31절)”라며 디나를 위하는 것처럼 말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으로 디나가 얻은 이익은 없다. 결국 그녀는 결혼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야곱의 집에서 쓸쓸히 살다가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이주한다(창 46:15).

이 장면에서 또 하나의 남성 연대가 나오는데 그것은 하몰과 세겜이다. 하몰은 아들 세겜이 디나를 성폭행한 후 결혼하고 싶다고 말하자 철저히 아들 편에 선다. 그는 아들의 요청을 들어주기 위해 야곱과 디나의 남자 형제들을 만나러 왔고 그들에게 세겜이 디나를 마음에 둔 것과 결혼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전달한다. 그리고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 많은 재물과 조건을 걸고 디나의 남자 형제들과 협상하고 세겜 사람들을 설득하여 할례를 받게 하는 등 아들을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하몰은 아들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거나 그의 범죄 행위에 대해 사죄하지도 않고 아들 편에 서서 아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분주히 움직인다. 이런 하몰의 모습은 딸을 위해 아무런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

9 박유미, “성폭력, 개인의 문제인가 사회적 문제인가? 구약의 ‘여성 성폭력-전쟁’의 패턴에 대한 연구”, 137.

야곱과 대조를 이룬다.

또한 이런 하물과 세겔의 모습은 디나의 어머니 레아가 이 장면에 등장하지 않는 것과 대조된다. 어머니 레아는 디나를 소개하는 부분에서 한 번 언급되는데 디나를 레아의 딸로 소개하기 때문이다.¹⁰ 하지만 딸인 디나가 곤경에 처하고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이 장면에서 레아는 등장하지 않는다. 그런데 창세기 24장 28절에 리브가의 결혼 결정은 리브가의 어머니 집에서 이루어지고 오빠 라반과 함께 어머니도 그 장면에 등장하여 딸이 좀 더 머물기를 요청하기도 한다(53, 55절). ‘어머니의 집’이란 표현은 여기와 아가 3장 4절, 룻기 1장 8절에만 등장하는 매우 드문 표현으로 마이어(Carol Meyers)는 일반적으로 여성이 화자로 등장하는 경우 어머니의 집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하였다.¹¹ 하지만 창세기 24장은 화자가 3인칭 전지적 화자로 성별을 구별할 수 없기에 이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그보다는 성(sexuality), 결혼, 그리고 자신과 타인의 운명을 결정짓는 여성들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 더 적절해 보인다.¹² ‘어머니의 집’이라고 표현된 세 용례는 모두 딸의 결혼과 관련된 맥락에서 사용되었기에 이 표현은 딸의 결혼에 어머니가 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그런데 어머니 레아가 디나의 성폭행 사건과 결혼을 결정하는 상황 속에서 전혀 등장하지 않는 것은

10 이 구문은 לְיַעֲקֹב לְרֵחָה אִשָּׁרָה בְּתֵּלֵּי־לֵאָה אִשְׁתֵּר (디나 바르 레아 아쉐르 알다 레아아코브)은 직역하면 “디나, 레아의 딸,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로 특이하게 ‘레아의 딸’로 소개된다. 웬함은 디나가 레아의 딸이라는 말이 야곱이 디나의 사건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고든 웬함, 「창세기 16-50」(박영호 옮김), (서울: 솔로몬, 2001), 551. 원제는 Gordon J. Wenham, *Genesis 16-50* (Waco Texas: Word Books, 1987).

11 참조, Carol Meyers “Returning Home: Ruth 1.8 and Gendering of the book of ruth” in *A Feminist Companion to Ruth*, ed. Athalya Brenner (Sheffield: Sheffield, 1993), 85-114.

12 케를 A. 뉴섬, 샤론 H. 린지 위음, 「여성들을 위한 성서주석: 구약편」, (이화여성신학연구원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223. 원제는 Carol A. Newsom, Sharon H. Ringe, *Women's Bible Commentar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8).

이상하다. 결국 어머니 레아가 등장하지 않음으로 성폭행 사건과 결혼 논의 과정에서 여성의 관점은 배제되고 여성의 이익을 대변해줄 목소리가 삭제되었고 이 사건은 남성의 관점에서 해석되고 남자 형제들의 이익을 위해 사건이 진행되었다.

2) 기브아 성폭행 사건(삿 19장)

사사기 19장의 기브아 성폭행 사건은 레위인과 그 첩이 기브아에 들어갔다가 첩이 기브아 사람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죽은 사건이다. 19장에서 첩이 화가나¹³ 집으로 돌아갔을 때 남편인 레위인은 첩을 데리러 왔다. 이때 사위인 레위인을 대접하는 것은 첩의 아버지이다. 구약의 집대문화에서 남자 주인이 남자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창 18장, 19장). 그렇기에 딸의 어머니는 장면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딸도 남편을 맞으러 나온 후 사라진다. 웹(Berry G. Webb)은 딸의 모습도 목소리도 사라졌으며 딸은 오직 두 남자를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고리 역할을 한다고 지적한다.¹⁴ 그리고 레위인 일행이 기브아에 들어갔을 때도 기브아 노인만이 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대접한다. 그러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자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끌어내 그들의 손에 넘긴다.¹⁵ 이 장면에서 기브아 노인은 위협받는 레위인을 위해 자신의 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놓겠다고 적극적으로 레위인을 돕는 강력한 남성 연대를 보여준

13 박유미, 「내러티브로 읽는 사사기」,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333. 임효명도 ‘행음하다’보다는 ‘화내다’라는 번역을 지지한다. 임효명, “성폭력 조력자들 연구”, 「구약논단」 83 (2022), 193 n. 14.

14 Berry G. Webb, *The Book of Judges*, (Grand Rapids: Eerdmans, 2012), 459-460.

15 임효명은 원문에서 ‘חַיִּיטָה(하이쉬)’로 기록한 것에 대해 레위인을 볼 것인지, 노인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보여준 후 이런 모호성이 레위인과 노인이 모두 성폭행의 조력자임을 보여주는 장치라고 해석하였다. 임효명, “성폭력 조력자들 연구”, 196-197. 하지만 정황상 레위인으로 해석된다. 참조 Webb, *The Book of Judges*, 468.

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보호하듯이 노인은 레위인을 보호한다. 노인의 이런 적극적인 보호는 레위인 장인의 극진한 대접을 연상시킨다. 이런 극진한 보호를 받는 레위인과 대조적으로 레위인이 첩을 끌어낼 때는 아무도 그녀를 돕지 않았다. 노인에게 자신이 보호해야 할 손님은 오직 레위인뿐이기에 노인은 일체 나서지 않는다. 그리고 그 집에는 기브어 노인의 딸과 아내가 있었지만 레위인 첩을 도울 경우 자신들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기에 그들은 레위인 첩을 도울 수 없었을 것이다. 기브아 노인은 자신의 처녀 딸을 불량배의 제물로 내놓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삿 19:24). 이렇게 첩이 아니면 자신들이 피해자가 될 상황에서 여성 연대를 형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이들은 본문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그리고 어머니 대신 남편인 레위인이 첩의 보호자로 행동해야 하는데 오히려 첩의 희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희생시킨 것은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노인의 딸을 희생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¹⁶ 그러므로 이 본문 역시 남성 연대의 공고함과 여성 연대와 여성을 위한 보호자의 부재를 통해 약자인 여성이 희생자가 될 수 밖에 없었음을 잘 보여준다.

3) 암논의 성폭행 사건(삼하 13장)

암논의 성폭행 사건은 다윗의 큰 아들 암논이 자신의 이복 누이인 다말을 성폭행한 사건으로 매우 강한 남성 연대를 보여준다. 암논이 성범죄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길 때 그는 사촌 요나답과 아버지 다윗의 도움을 받는다. 요나답은 다말을 성폭행할 방법을 알려주었고 다윗은 다말을 암논의 방으로 가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성폭행 사건 이후에도 다

16 박유미, “성폭력, 개인의 문제인가 사회적 문제인가? 구약의 ‘여성 성폭력-전쟁’의 패턴에 대한 연구”, 133.

말은 암논에게 내쫓기면서도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며 도와 달라고 요청한다. ‘울부짖다’로 번역된 동사 **בָּיַח**(자아크)는 부당한 고통을 겪은 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법률적 용어로 볼 수 있다(신 22:23-27).¹⁷ 그렇지만 남성 보호자들은 그녀를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다윗은 화만 낼뿐 암논을 처벌하지 않았고 오빠 압살롬은 ‘잠잠하라’며 다말의 입을 막는다. 여기서 다윗이 암논에게 벌을 내리지 않은 것은 암논의 죄를 덮기 위한 것으로 그는 철저히 암논을 보호하였다.¹⁸ 범죄가 일어난 후에도 남성 연대는 여전히 강고하였다. 반면에 이 본문에서도 다말의 어머니 마아가는 등장하지 않는다. 마아가는 다윗의 세 번째 부인으로 그술왕 달매의 딸로 소개된다(삼하 3:3). 그녀는 이름으로만 소개되고 이야기 속에서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후 그의 외할아버지 그술왕에게 도망간 것을 보면(삼하 13:37) 다말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직 살아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마아가는 다말을 위해 어떤 말도 행동도 하지 않는다. 이것은 후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후 어머니 마아가의 친정인 그술왕에게 도망하도록 도운 것과 대조를 이룬다. 마아가는 다말 사건에는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지만 압살롬 사건에서는 도망할 수 있는 피난처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어머니 마아가의 영향력이 있었기에 압살롬이 그술로 도망가서 살 수 있었던 것이다. 다말은 피해자였어도 도움을 받지 못해 쓸쓸히 살아야 했지만 압살롬은 살인을 하고도 어머니의 도움을 톡톡히 받은 것이다. 여기서도 피해자 다말은 자신을 보호하고 대변해줄 어머니는 찾을 수 없었다.

17 김이곤, “다윗의 딸 다말 애도송-지혜를 능욕하는 왕권을 고발하며”, 『기독교사상』 30 (1986), 110.

18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논의는 박유미의 “성폭력, 개인의 문제인가 사회적 문제인가?” 논문을 참조. 142-143.

이렇게 세 개의 성폭행 사건에서 여성을 대변할 어머니도 여성을 위한 보호자도 없었고 그 결과 성폭행 피해자들의 음성이 삭제되거나 무시되었으며 피해자의 이익은 무시되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3.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

곤란에 처한 딸들의 본문에서 공통적으로 어머니가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구약 시대는 어머니가 자녀를 보호하거나 영향력을 가지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구약 본문에서는 곤란에 처한 아들 혹은 아들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어머니 모습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대표적으로 사라와 이삭(창 21장), 리브가와 야곱(창 27장), 밧세바와 솔로몬(왕상 1장), 수넴 귀부인과 아들(왕하 4장)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한다.

1) 사라와 이삭(창 21장)

사라는 오랜 불임의 시간을 보내다 90세에 아들 이삭을 얻는다. 그리고 이삭이 젖 땔 때가 되었을 때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그녀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명령한다. ‘내쫓으라’로 번역된 동사 **שָׁרַף**(가레쉬)는 **שָׁרַף**(가라쉬)의 피엘 명령형으로 이는 사라가 요청이나 권유를 한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는 것이다. 즉,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로 아브라함의 모든 권한과 재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요구한 것이다. 사라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누이라고 속여달라고 말할 때도, 바로와 결혼하게 될 때도 아

브라함에게 어떤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신이 처한 불합리한 상황에서는 침묵했지만 자기 아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하게 목소리를 내었다. 이런 사라의 말에 대해 아브라함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반대하였지만¹⁹ 사라는 물러서지 않았고 마침내 자신이 목적인 바를 달성하게 된다. 즉, 하갈과 이스마엘은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삭이 모든 권한과 재산을 차지하게 된다. 여기서 사라는 아들을 위해 남편과 맞서는 강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²⁰ 그리고 이삭은 어머니의 도움으로 혼자 모든 재산과 권리를 얻게 된다.

2) 리브가와 야곱(창 27장)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는다. 그리고 그녀는 사냥꾼인 에서보다는 조용하게 집에 있는 야곱을 더 사랑하였다. 그런데 이삭이 나이 먹고 눈이 어두워지자 에서에게 축복하기로 결심한다. 4절에서 이삭은 너에게 축복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נִבְרַךְ אֶתְּךָ אֱלֹהֵי' (테바레크카 나프시)로 직역하면 '나의 영혼이 너를 축복할 것이다'이다.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겠다는 것은 매우 오래된 가부장적 관습으로 그를 상속자로 삼겠다는 의미이다.²¹ 하지만 리브가는 야곱을 더

19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니'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וַיִּרְעַב הָאָדָם' (바이라 하다바르 메오드)로 직역하면 '그 일이 매우 악했다, 불쾌했다'이다.

20 이런 사라의 모습은 하갈과 이스마엘의 생존을 위협하는 박해자의 모습으로 보이며 부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아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다는데 중심을 둔 해석이기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도록 하겠다. 다만 이스마엘도 어머니 하갈의 도움으로 살아나고 아내를 얻고 큰 부족을 이루게 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창 21:16-19, 21).

21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있다. 윌키와 프레드릭스는 복과 장자권을 분리하여 이삭이 에서에게 주는 것은 복으로 신적 권위, 번영, 지배권이라고 보았고 장자권은 유산 상속이라고 보았다. 브루스 K. 윌키, 캐시 J. 프레드릭스, 『창세기 주석』, (김경열 옮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676. 원제는 Bruce K. Waltke & Cathi J. Fredricks, *Genesis :a commentary* (Grand Rapids, Mich.: Zondervan, 2001). 천 사무엘은 장자권과 축복권은 서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축복은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 일

사랑하였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신탁도 들은 상황이라(창 25:23) 리브가는 야곱을 상속자로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한다. 하나님의 신탁이 리브가의 결심에 당위성을 제공했을 것이다. 그러자 그녀는 이삭을 속이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히고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입혀 에서처럼 치장시킨 후 이삭이 좋아하는 염소 고기 요리까지 만들어 야곱을 이삭에게 들여보낸다. 이때 야곱이 이 일이 들켜 아버지의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졌지만 이마저도 리브가는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라며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 모든 책임과 저주까지도 자신이 떠맡겠다고 나선다.²² 그녀는 야곱을 위해 목숨이나 저주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야곱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 것이다. 그리고 리브가의 계획대로 야곱은 무사히 이삭을 속이고 모든 축복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이런 리브가의 모습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불이익까지도 감수하겠다는 열성적인 어머니의 전형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이런 리브가의 행동의 결과가 긍정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아들 간에 싸움이 나고 야곱은 라반의 집으로 도망해야 했고 리브가는 다시는 야곱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라와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아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 결과가 항상 윤리적이거나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창세기에 기록된 어머니의 모습은 가족 내에서 발언권을 가지며 자기 자식 문제에 대해서 관여할 권한도 있고 실제로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런 관점에서 보면 디나의 문제

종의 맹세행위로 보았다. 천사무엘, 「창세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367-368.

22 웬함은 이삭이 야곱에게 내린 저주가 리브가에 갈 수 있을지에는 의문을 제기하지만 이 말은 야곱이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도록 만들기 위한 욕망의 잔인함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웬함, 「창세기 16-50」, 385.

에 개입하지 않은 어머니 레아의 모습은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밋세바와 솔로몬(왕상 1장)

밋세바는 원래 헛 사람 우리아의 아내였지만 다윗의 성범죄²³의 결과로 다윗의 아내가 된 인물이다. 그녀는 다윗에게 성범죄를 당할 때 다윗의 적극적인 행동에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인물로 나온다(삼하 11:4). 그리고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을 때도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뿐 자신에게 닥친 불행과 남편의 죽음에 어떤 대응도 하지 않는다. 죽은 남편을 애도하고 장례를 치르는 것과 같은 통상적인 아내의 의무만을 수행하다 장례 후 다윗이 그녀를 아내로 삼자 궁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사무엘하 11장에 묘사된 밋세바는 자신의 의견을 한 번도 피력하지 않고 다윗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지극히 수동적인 인물이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왕상 1장)에서 밋세바는 매우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다윗이 나이가 들자 학깃의 아들인 아도니야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의 지지를 받으며 왕이 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 소식을 들은 나단 선지자는 솔로몬의 어머니 밋세바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려주며 당신과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획을 알려주겠다고 한다. 이 말은 아도니야가 왕이 되었을 때 밋세바와 솔로몬의 목숨이 위협하다는 것을 경고한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밋세바는 매우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즉시 다윗에게 찾아가 자신에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겠다고 한 다윗의 약속을 언급한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에 밋세바는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언급하였다. 그리고 요압과 아비아달의 지지로 아도니야가 왕이 되었다는 사실과 솔로몬이

23 박유미는 이 사건을 다윗의 위계에 의한 성폭행 사건으로 명명한다. 박유미, 「오늘 다시 만나는 구약 여성」, (서울: 헬시바, 2022), 44.

초대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전한다. 이것은 아도니야가 왕이 되면 솔로몬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린 것이다. 그러면서 온 백성이 기다리고 있으니 왕이 다음 왕을 지정해야 하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자신들은 죽은 목숨이라며 다윗을 압박한다. 이런 밋세바의 말을 들은 다윗은 그녀와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며 솔로몬을 왕으로 선택한다. 이렇게 밋세바는 결정적인 순간에 나서서 자기 아들인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수 있게 만든다. 비록 나단의 도움이 있었지만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어머니인 밋세바였다.²⁴ 넬슨(Richard D. Nelson)은 이런 밋세바를 아들의 장래를 위해 필사적으로 분투한 어머니로²⁵ 안드레센(Niels-Erick A. Andreasen)은 상담자와 지혜의 원천으로서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한다.²⁶ 밋세바도 사라처럼 자신이 다윗의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되고 성폭행당할 때도 남편이 죽었을 때도 침묵하고 소극적으로 행동했지만 아들 솔로몬의 이익을 위해선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였다.

4) 수넴 귀부인과 아들(왕하 4장)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수넴 귀부인²⁷은 엘리사에게 양식과 방을

-
- 24 윌리스는 한발 더나가 밋세바가 아버지 사건을 통해 솔로몬이 아도니야를 제거할 기회까지 제공하였다고 해석한다. 즉, 아도니야가 솔로몬의 왕권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알고 솔로몬을 선동했다는 것이다. Joyce Willis, "Conversation in the Succession Narrative of Solomon", *VT* 61 (2011) 133-147. 142.
- 25 리처드 넬슨, 「열왕기상·하: 목회자와 설교자를 위한 주석」, (김희권 옮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49. 원제는 Richard D. Nelson, *First and Second Kings* (Atlanta: John Knox Press, c1987).
- 26 Niels-Erick A. Andreasen, "The Role of the Queen Mother in Israelite Society", *CBQ* 45 (1983), 193.
- 27 왕하 4:8에 '한 귀한 여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הַיְהוּדָה הַיְהוּדָה**(이샤 게들라)로 '위대한, 고귀한 뛰어난'이라고 번역되는데 모세(출 11:3), 다윗(삼하 5:10), 욘(욘 1:3), 모르드개(에 9:4)에게 이 단어(가들 **גִּדְלָה**)를 붙였고 왕상 5:1에서 나아만은 남성형인 **גִּדְלָה**

제공한 부유하고 신분이 높은 여성이다. 그녀는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즉,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엘리사를 적극적으로 돕는다. 그리고 수넴 귀부인의 호의에 보답하고 싶었던 엘리사의 기도로 그녀는 아들을 얻게 된다. 이 과정에서 수넴 귀부인이 아들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기에 그녀가 아들을 얻은 것은 순전히 엘리사의 감사와 호의로 인한 것이었다. 즉, 수넴 귀부인은 일반적인 불임 여성과 달리 아들을 갖는 것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수넴 귀부인은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을 때는 아들을 얻을 때의 소극적인 모습과 달리 매우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그녀는 아들이 자기 무릎 위에서 죽자 그를 엘리사의 방 침상에 누이고 엘리사에게 달려간다. 이때 남편은 그녀의 출발을 제지하지만 그녀는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²⁸ 나귀를 타고 엘리사에게 간다. 엘리사는 수넴 귀부인이 오는 것을 알고 사환을 보내 마중 보냈으나 그녀는 게하시에게 대충 인사하고 바로 엘리사에게 가서 그의 발을 붙잡는다. 그녀의 목적은 한시 빨리 엘리사를 만나는 것이기에 남편과 게하시의 말을 ‘샬롬’²⁹이란 한마디로 무시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달려간다. 여기서 남편과 게하시의 긴 말(왕상 4:23, 26)과 수넴 귀부인의 ‘샬롬’이란 한 마디의 대조를 통해 수넴 귀부인이 이들의 말을 무시하고 있음을 잘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엘리사가 모든 사정을 알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들려 보냈을 때

𐤀𐤍 (이취 가돌)로 소개된다. 이 단어를 여성에게 붙임 용례는 여기가 유일하다. 그리고 때때로 이 단어는 ‘부유한’으로 번역되기도 한다(RSV, NRSV). KJV는 ‘위대한(great)’으로 번역하였는데 이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여성이란 의미이고 NIV는 ‘유능한’으로 번역하였다. 참조, Gene Rice, “A Great Woman of Ancient Israel (2 Kings 4:8-37; 8:1-6)”, *The Journal of Religious Thought* 60-63 (2008-2010), 70.

28 넬슨은 이것을 죽음을 맞이하는 다음 단계의 행동인 애곡과 매장을 추진하려는 남편의 행동을 막은 것으로 해석한다. 넬슨, 「열왕기상하」, 281-282.

29 23절과 26절의 ‘평안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שָׁלוֹם** (샬롬)으로 이것은 일상적인 인사말로 수넴 귀부인은 남편의 말과 게하시의 인사에 이 말 한마디만 하고 자기의 길을 간다.

도 그녀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엘리사가 같이 갈 것을 강권한다. 그녀가 엘리사의 발을 잡은 것은 복종이 아니라 강요하는 행위이다. 그녀는 절대 엘리사를 떠나지 않겠다고 여호와와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이것은 엘리사가 같이 갈 때까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그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최선을 다해 매달린다. 결국 엘리사는 수넴 귀부인의 강요에 못이겨 수넴 귀부인 집으로 가서 아이를 직접 살린다. 사실 엘리사가 먼저 보낸 게하시의 아이를 살리지 못하고 되돌아왔기 때문에 수넴 귀부인의 적극적인 요청이 없었다면 아이의 생명이 어찌 되었을지 알 수 없다. 수넴 귀부인의 빠른 판단과 행동과 굳센 의지가 자신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일으킨 것이다. 수넴 귀부인은 가만히 있는 아이 아버지와 달리 아이를 구하기 위해 움직였으며 소극적인 엘리사를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었다. 결국 죽은 아들을 살린 것은 수넴 귀부인이다. 이에 대해 라이스(Gene Rice)는 수넴 귀부인이 모성애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라고 평가한다.³⁰

이렇게 왕정 시대에 나타난 두 어머니는 아들을 왕위에 오르게 만들고 죽은 아들을 살리기도 하였다. 왕정 시대에도 어머니는 아들의 이익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브릿지(Edward J. Bridge)는 구약에서 어머니가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고 어머니가 아이들의 종교 교육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과 언어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결합하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성이 가정 내에서 매우 영향력이 컸다고 주장하는 연구를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³¹

브릿지의 지적과 아들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4명의 어머니

30 Rice, "A Great Woman of Ancient Israel", 77.

31 Edward J. Bridge, "A Mother's Influence: Mothers Naming Children in the Hebrew Bible", 400.

니의 모습을 보면 구약 시대에 어머니들이 가정 내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보호자이며 양육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곤란에 빠진 딸 사건에 어머니가 부재한 것은 어머니가 가정 내에서 보호자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문화 때문이라는 견해는 옳지 않다는 결론에 이른다. 즉, 어머니도 아버지처럼 가정 내에서 자식을 보호하고 자식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결과를 통해 볼 때 곤란에 빠진 딸의 사건에 어머니가 부재한 것은 어머니의 역할의 문제가 아닌 다른 이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 딸을 위한 어머니 부재 이유

구약에서 어머니와 딸의 관계를 언급하는 본문은 없는 반면 어머니는 항상 아들과 관련되어 등장한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아들의 양육자와 보호자로서 역할하고 있음을 알아보았다. 이 장에서는 왜 어머니가 딸 이야기 속에서는 부재하고 오직 아들과만 관련되어 나타나는지 사회 구조적 이유와 신학적 이유를 찾아보려고 한다.

1) 남아선호의 가부장제 사회의 영향

혹스(Esther Fuchs)는 ‘성의 정치학(Sexual Politics)’을 기반으로 구약 어머니의 특징을 연구하였다. 밀렛(Kate Millett)의 정의에 따르면 정치는 ‘일군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는 권력으로 구조화된 관계와 배치를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한다.³² 또한 우리 사회 질서 안에서

32 케이트 밀렛, 「성의 정치학」, (김유정 옮김), (서울: 샘앤파커스, 2020), 50. 원제는 Kate Millett, *Sexual Pol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6).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생득적 우월성은 제도화 되어 있으며 성의 지배는 우리 문화에 가장 널리 만연해 있는 이데올로기이며 가장 근본적인 권력 개념을 제공하는데 이는 모든 다른 역사 문명이 그러했듯 우리 사회 또한 가부장제 사회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하였다.³³ 그리고 성의 정치학은 “양성이 기질이나 역할, 지위에 관하여 가부장적 형태로 ‘사회화’되는 과정을 통해 합의를 얻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³⁴ 그리고 이런 가부장제의 주요 제도는 가족이며 엄격한 가부장제는 혈연관계에서 오직 남성의 가계만 인정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³⁵ 즉, 밀렛은 성의 정치학을 통해 사회가 가진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를 잘 드러내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혹스는 이 이론을 바탕으로 모성 제도가 강력한 가부장적 메커니즘이며 부계 혈통과 일부일처 결혼(아내의 경우만)과 결합된 여성의 재생산 능력에 대한 남성의 통제는 아내를 남편의 독점적 재산으로 확보하고, 가부장제 관습과 부계 상속 패턴을 통해 남편의 이름과 가족 재산의 연속성을 보장한다고 하였다.³⁶ 그리고 그는 탄생 예고에 대한 전형적 장면 연구를 통해 모성을 여성의 개인적 성향이 아니라 가부장적 제도로서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고 보았다.³⁷ 즉, 모성은 가부장제의 결과물이자 가부장제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이며 이것은 구약 어머니 이야기 속에 잘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런 혹스의 관찰과 주장은 왜 구약의 어머니가 아들과만 연결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33 밀렛, 「성의 정치학」, 52.

34 밀렛, 「성의 정치학」, 54.

35 밀렛, 「성의 정치학」, 63.

36 Esther Fuchs, “The Literary Characterization of Mothers and Sexual Politics in The Hebrew Bible”, 160.

37 Fuchs, “The Literary Characterization of Mothers and Sexual Politics in The Hebrew Bible”, 160.

고대 근동시대는 아버지와 남편을 중심으로 가계를 형성하는 가부장제 사회였다.³⁸ 그리고 이런 구조는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니었다. 구약 시대는 아들들이 집안의 혈통과 이름을 계승하고 부모의 재산도 그들의 수중에 항상 남아 있으며 또한 딸들은 결혼함으로써 이제까지 살았던 집에서 나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계를 측정하는 인원수에 들어가지 않는다.³⁹ 구약은 이런 가부장제⁴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에 딸보다는 부계 혈통을 이을 아들을 중요하게 여겼고 그 결과 어머니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가계를 이을 아들을 낳고 아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이런 문화 속에서 불임 여성은 가정과 사회에서 자리를 얻을 수 없는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그렇기에 불임인 사라는 아브라함의 부당한 요구에도 항의하지 못했고(창 12장) 사랑받는 아내였던 라헬도 자신의 지위를 불안하게 여겼기에 시녀를 통해서라도 아들을 얻으려고 한다(창 30장). 그리고 가정과 사회에서 어머니의 지위는 아들과 연결되기 때문에 구약의 어머니들은 대개 아들을 원

38 Victor H. Matthew, "Marrage and Family in the Ancient Near East", in *Marrige and Family in the Bible World*, Ken M. Campbell ed.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03), 1-2.

39 R. 드보, 「구약시대의 생활 풍속」, (이양구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3), 85. 원제는 Roland de Vaux, (*Das Alte Testament und seine Lebensordnungen*, (Freiburg, Basel, Wien: Herder, 1960).

40 블록(Daniel I. Block)은 가부장제(Patriarchy)라는 단어가 갖는 부정적인 면을 의식하여 가부장중심제(Patricentrism)로 부를 것을 제안하였고 마이어는 남성중심제(Androcentrism)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떻게 문화 속에서 남성의 권력이 생산되었는지 설명하는 데 더 적당한 표현이라고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견해 모두 가부장제의 기본 요소인 남성의 가계를 중심으로 남성이 가정과 사회에서 권한과 권력을 갖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가부장제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퍼듀(Leo G. Perdue)는 남성중심제가 남성지배적이거나 가부장제로 넘어가고 있음을 인정하며 남성중심제와 가부장제가 연결되어 있음을 인정한다. Daniel I. Block, "Marrige and Family in Ancient Israel", in *Marrige and Family in the Bible World*, Ken M. Campbell ed.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03), 41-42. Carol Meyers, "The Family in Early Israel", in *Families in Ancient Israel*, (Louisville: Westmister John Knox Press, 1997), 34-35. Leo G. Perdue, "Household, Theology, and Contemporary Hermeneutics", in *Families in Ancient Israel*, (Louisville: Westmister John Knox Press, 1997), 246.

했다.⁴¹ 구약에 나오는 불임 이야기를 보면 모든 어머니는 아들 낳기를 원하였고 딸을 원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다. 예를 들어 불임으로 고통 받은 라헬은 야곱에게 ‘나에게 아들들(בָּנִים) 바님)을 달라’라고 요구한다(창 30:1). 한나는 특별히 ‘남자 아이(בְּרִיךְ אֱלֹהֵינוּ) 제라 아나심)’라고 말하여 아들을 달라고 분명히 요청하고 있다. 그리고 불임 여성에게 자식을 주겠다는 신탁도 모두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만 있다(창 16:11; 17:19; 사 13:3). 이렇게 구약에서 아이를 원한 모든 어머니는 ‘아들’을 원했고 구약에 나타난 탄생 예고는 전부 아들의 탄생을 예고하였다.

또한 탄생 이야기에서도 아들의 탄생만 언급된다. 오직 레아의 딸 디나만 예외인데 레아가 디나를 낳고 이름을 지었다고 기록한다(창 30:21). 하지만 이름의 뜻을 붙여준 아들들과 달리 디나 이름의 뜻은 언급되지 않아 여기서도 차별이 나타난다. 그리고 가족의 수나 족보에도 거의 아들만 언급된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밤에 야곱의 가족이 압북 나루를 건널 때 ‘두 아내와 열한 아들’⁴²만 언급하며 디나는 가족 수에서 제외된다. 이런 현상은 다윗의 자녀가 소개될 때도 마찬가지이다. 사무엘하 3장 2절에서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בָּנִים)만 소개한다고 말하고 3절에서 마야가의 소생으로 다말을 빼고 압살롬만 언급한다. 그러므로 사실 다윗에게 다말 외에 몇 명의 딸이 더 있었는지 알 수 없다.⁴³ 사울의 경우는 특이하게 세 아들의 이름과 함께 두 딸의 이름(메랍과 미갈)도 나오는데(삼상 14:49) 이는 다윗과 결혼 이야기가 오가거나 결혼

41 Fuchs, “The Literary Characterization of Mothers and Sexual Politics in The Hebrew Bible”, 164.

42 여기서 ‘아들들’은 히브리어(בָּנִים) 엘레드)의 남성 복수형을 사용한다.

43 역대상 3장 9절에는 다말이 다윗의 첩들에게 태어난 아들들과 함께 다윗의 아들들의 누이로 소개된다. 브라운은 이를 다윗의 누이라고 말하며 유일한 누이기에 기록했다고 하였지만 다윗의 누이는 2:16에 나오고 있으며 다말은 다윗의 딸로 그녀의 이름은 압넌과 압살롬 사건을 기억나게 한다. 참고, 로디 브라운, 「역대상」, (김의원 옮김), (서울: 솔로몬, 2006), 138. 원제는 Roddy Braun, *1 Chronicles*, (Waco, Texas: Word Books, 1986).

하는 것으로 사울 내러티브 속에 등장하기에 예외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⁴⁴ 이렇게 어머니는 오직 아들을 낳길 원했고 하나님은 아들만 주셨고 족보에는 거의 아들만 기록되어 있다.

아들을 중요시하고 아들을 원하는 이런 남아선호사상은 우리에게도 매우 익숙한 문화이다. 한국도 아주 오랫동안 시집간 여성들에게 있어서 ‘아들 낳기 과제’는 시가에서 적격의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관문이었으며, 가정 안팎의 사회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였다.⁴⁵ 이렇게 가부장제 사회에서 아들에 대한 선호는 결국 그 사회의 어머니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런 사상을 자신으로 것으로 내면화하게 된다. 김종군의 남아선호사상에 대한 연구에서 보면 “인권을 침해하는 수준의 아들 낳기 강요는 그 사회와 사회구성원의 욕망에서 기인하였으며 그 안에서 여성들은 마치 남성 중심 가부장제 사회가 고집하고 있는 아들 낳기 욕망이 자신의 것인 양 자신의 몸과 마음을 희생하고 그 억압 속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였다”고 지적한다.⁴⁶ 즉, 사회 전체 구조가 남아선호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여성인 어머니들도 딸보다는 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고 생각하게끔 교육받고 체화되고 이런 어머니에게는 사회적 가정적으로 큰 보상과 인정이 뒤따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지적은 구약 어머니가 왜 아들 낳기를 간구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된다. 그리고 모성애와 어머니의 역할도 사회화의 산물이기에⁴⁷ 아들을 중요시 여기는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어머

44 메랍은 삼상 18:17에서 결혼 상대로 언급되다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사라졌다가 삼하 21:8에서 사울의 죄 때문에 죽은 사울 후손의 이름이 언급될 때 등장한다.

45 김종군·박재인·이미화, “구술생애담을 통해 본 남·북·중 코리언 여성들의 아들 낳기 문제와 젠더 의식”, 『다문화콘텐츠연구』 33 (2020), 334.

46 김종군 외, “구술생애담을 통해 본 남·북·중 코리언 여성들의 아들 낳기 문제와 젠더 의식”, 352.

47 여성주의는 여성의 어머니 노릇이 선천적인 본능이 아니라 사회화의 산물이라고 보는

니가 아들을 보호하고 아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것은 당연한 행동이자 의무로 여겨졌다. 그렇기에 앞에서 아들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인 어머니들인 사라, 리브가, 밧세바, 수넴 귀부인 이야기가 구약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구약은 아들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머니의 역할을 아들을 위한 보호자로 한정하고 있기에 딸을 위한 어머니 모습에는 관심을 두지도 않고 기록하지도 않았다. 그렇기에 구약에선 딸을 위한 어머니의 목소리도 행동도 존재하지 않는다.

2) 신학적 이유

또 한편으로 아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 어머니 이야기의 특징은 하나님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표현된다는 것이다. 사라가 이삭을 위해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사라의 말을 따르라고 하신다(창 21:12). 이것은 사라가 이삭을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행동으로 본 것이다.⁴⁸ 맥아더는 이삭을 위해 행동한 사라를 인내한 훌륭한 어머니로 극찬하기도 한다.⁴⁹ 그리고 리브가가 자신이 사랑하는 야곱을 지지한 것도 하나님의 선택(창 25:23)에 근거한 행동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물론 속임수라는 방법을 사용한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없지만⁵⁰ 그녀가 야곱을 위해 행동한 것은 하

역할 훈련론의 입장을 가진다. 이주아, “비혼과 비출산의 시대, 기독교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와 생물학적 모성 담론에 대한 여성주의 기독교교육 방안”, 『기독교교육정보』 74 (2022), 7.

48 슈나이더의 경우 사라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그들은 서로를 지지해주는 공생관계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Tammi J. Schneider, *Mothers of Promise- Women in the Book of Genesis*, (Grand Rapids, Mich. : Baker Academic, 2008), 40.

49 존 맥아더, 『하나님이 선택한 비범한 여성들』,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1), 75-79.

50 웬함은 드라이버의 견해를 따라 리브가와 야곱의 행위가 전적으로 수치스러우며 옹호 받을 수 없다고 평가한다. 웬함, 『창세기 16-50』, 396 재인용. 천사무엘은 절대 하나님의

나님의 선택을 따른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⁵¹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주었던 축복이 야곱에게 간다.⁵² 그리고 밧세바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밧세바는 다윗이 여호와 이름으로 솔로몬을 왕을 세우겠다고 맹세한 것을 근거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고 압력을 넣는다(왕상 1:17).⁵³ 수넬 귀부인의 경우는 하나님의 선택은 없지만 그녀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수넬 귀부인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보셨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된 하나님의 지지는 아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어머니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만든다. 즉, 어머니가 아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신앙적인 행동으로 읽히게 된다. 이렇게 구약의 가부장제 문화에 따른 남아선호와 본문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지지가 아들을 원하고 아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어머니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이상적인 모성의 모습으로 보이게 만들었다고 생각

축복을 사모했기 때문이라며 속이는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천사무엘, 「창세기」, 371.

- 51 물러는 리브가의 행동을 하나님의 선택을 현실화시킨 영웅적 인물로 평가한다. Marry Lou Mueller, "Three mothers and the will of God", *U.S. Catholic* 61 (1996), 38.
- 52 왈키와 프레드릭스는 방법이 옳지 않았지만 축복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전달되었다고 평가한다. 왈키 & 프레드릭스, 「창세기 주석」, 689. 원함도 가족의 모든 구성원이 각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기 중심적으로 행하는 그러한 원칙 없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구원의 역사를 향한 새로운 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함으로 속임은 문제이지만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 원함, 「창세기 16-50」, 398.
- 53 이 약속이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 윌리스는 개인적 대화 속에서 솔로몬을 왕으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왕실의 선전이라고 본다. Willis, "Conversation in the Succession Narrative of Solomon", 143. 넬슨은 이런 맹세가 반쪽만의 진실, 입증되지 않은 단정들, 조작된 확증으로 다윗을 속인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지지한다. 넬슨, 「열왕기상.하」, 51-52. 54. 드브리스는 왕위 계승 역사가의 중심적인 진리는 야웨가 아도니아를 꺾고 솔로몬을 세우는 일을 했다는 것이라며 하나님이 솔로몬을 지지했다고 결론 내린다. 시몬 J. 드브리스, 「열왕기상」, (김병하 옮김), (서울: 솔로몬, 2006), 158. 원제는 Simon J. DeVris, *1 Kings*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2003).

한다. 현재 교회에서는 아들이 아닌 아이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주신 최고의 임무는 아이를 잘 돌보고 교육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며 남아 선호가 흐려지긴 하였지만 여전히 그 그림자가 짙게 남아 있다.

5. 여성을 위한 연대를 위하여

이 글을 마무리하며 두 가지 예를 통해 곤란에 처한 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여성을 위한 연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하려고 한다. 첫째는 곤란에 처한 딸들의 곤란이 해결되지 않은 것은 이들을 지지하고 문제를 해결해 줄 어머니나 여성 보호자의 부재와 무관심하거나 남성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남성 보호자들 때문임을 알 수 있었다. 만일 곤란에 처한 딸에게도 그녀들의 입장과 이익을 위해 도와줄 어머니와 같은 보호자가 있었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먼저 레아가 야콥을 위해 나선 리브가처럼 적극적으로 자식들과 남편에게 디나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제안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만들었다면 디나의 처지는 달라졌을 것이다. 일단 세겜의 사과를 받았을 것이고 성폭행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세겜으로부터 보상을 받을지 결혼할지 선택할 기회를 가졌을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피해자인 디나는 자신의 의견을 말할 기회를 얻게 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디나의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좋았을 것이다. 그리고 레아의 아들들은 세겜을 진멸하는 전쟁을 일으키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레위인의 첩이 수넴 귀부인과 같이 자기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인 어머니의 보호를 받았다면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다말의 어머니 마야가가 솔로몬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다윗을 찾아가 약속을 지키라며 읍소한 밋세바와 같이 다말을 위해 다윗을 찾아가 읍소했다라면 다말의 상황은 지금보

www.kci.go.kr

다 나왔을 것이다. 아들을 위한 만큼 어머니가 딸을 위해 움직였다면 딸의 상황은 상당히 나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버지가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선 것처럼 딸을 위해 행동했다면 딸들의 피해는 훨씬 줄었을 것이다. 다윗이 암몬의 아버지가 아닌 다말의 아버지로 행동했다면 다말의 인생은 달라졌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여성 피해자가 보호되고 그의 목소리가 전달될 때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더 큰 약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철저히 피해자의 목소리가 차단되고 연대해주는 사람 없이 피해자가 고립된 사회는 결국 더 큰 폭력을 부르는 부도덕한 사회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신약의 예들은 보호자의 존재가 딸의 곤란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지지한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한 관리인 아버지⁵⁴가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께 절하며 간절히 요청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딸을 살려주신다(25절). 그런데 이 이야기는 수넴 귀부인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매우 유사한데 자녀의 죽음, 직접 와서 절함, 직접 오기를 요청함, 살아남이란 모티프가 공통으로 등장한다. 다만 어머니와 아들, 아버지와 딸이란 관계만 다를 뿐인데 이런 대조를 통해 딸도 아버지로 대변되는 보호자가⁵⁵ 도와주면 상황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음을 더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가나안 여자가⁵⁶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구해달라고 소리 지르며 쫓아다닌다. 그런데 예수는 본인은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며 그녀를 개 취급하며 그 요청을 모질게 거절하신다(26절). 하지만 가나안 여자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모진 말에

54 마가복음 5장 22절과 누가복음 8장 41절에서는 이 사람을 아이로라고 소개한다.

55 이 아버지의 모습은 딸을 전혀 돕지 않았던 야곱과 다윗의 모습과 대조된다.

56 마가복음 7장 26에서는 수로보니게 족속 여자로 소개된다.

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구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결국 예수는 그녀를 칭찬하며 딸을 고쳐주셨다(30절). 가나안 어머니는 곤경에 처한 딸을 구하기 위해 개인적 자존심뿐만 아니라 관습적이고 사회적인 역할을 넘는 과감한 행동을 했다. 이 두 예에서 곤란에 처한 딸을 돕기 위해 나선 아버지와 어머니 덕분에 딸들이 생명을 얻고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신약은 예수를 통해 곤란에 빠진 딸도 아들과 마찬가지로 어머니와 보호자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과 도움을 받았을 때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신약에서 딸들을 살리시고 치료해 주시는 예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지향하는 것은 딸이나 아들이나를 떠나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대접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⁵⁷

아직도 우리 사회는 가부장제의 잔재인 남아선호사상이 남아 있고 그 영향으로 많은 어머니가 아직도 아들을 위한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하지만 점점 사회는 딸과 아들에 대한 차별, 남녀에 대한 차별을 점점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렇기에 이제는 아들이나 남성만이 보호받고 그들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사회가 아니라 딸과 여성도 동등하게 보호받고 그들의 의견이 존중되는 사회로 변해가야 한다. 그런데 교회가 이런 변화에 가장 뒤처지고 있는 현실을 볼 수 있다. 교회가 가장 강고한 가부장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남녀 차별의 문제나 교회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의 경우 남성 목회자, 남성 중직자의 공고한 남성 연대를 통해 여성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때 여성들은 교회 내에서 자

57 신약은 오히려 아들의 병을 고치는 사건은 한 번(마 17:15-18)밖에 나오지 않는 것도 관찰되는데 이것은 구약의 아버지와 남성 보호자의 모습과 신약의 예수의 모습과의 대조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신을 도와줄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 다말이 성폭행당한 상황 속에서 어머니, 아버지, 오빠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고립된 것과 현재의 상황이 그다지 다르지 않을 때가 많다. 이런 정의롭지 못한 상황이 변화되려면 차별받고 고통받는 여성을 도울 어머니와 보호자와 지지자가 절실히 필요하다. 교회 안에 여성을 위한 연대와 보호가 있을 때 여성들도 피해자로 차별받는 딸로 계속 남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교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고堂堂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 김이곤, “다윗의 딸 다말 애도송: 지혜를 능욕하는 왕권을 고발하며”, 『기독교사상』 30 (1986), 95-144.
- 김종균·박재인·이미화, “구술생애담을 통해 본 남·북·중 코리언 여성들의 아들 낳기 문제와 젠더 의식”, 『다문화콘텐츠연구』 33 (2020), 331-368.
- 넬슨, 리차드, 『열왕기상·하: 목회자와 설교자를 위한 주석』, (김희권 옮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원제는 Nelson, Richard D., *First and Second Kings* (Atlanta: John Knox Press, c1987).
- 드보, R., 『구약시대의 생활 풍속』, (이양구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3), 85. 원제는 Roland de Vaux, *(Das) Alte Testament und seine Lebensordnungen*, (Freiburg, Basel, Wien: Herder, 1960).
- 드브리스, 시몬 J., 『열왕기상』, (김병하 옮김), (서울: 솔로몬, 2006), 원제는 DeVris, Simon J., *1 Kings*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2003).
- 존 맥아더, 『하나님이 선택한 비범한 여성들』,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1).
- 밀렛, 케이트, 『성의 정치학』, (김유정 옮김), (서울: 샘앤파커스, 2020), 원제는 Millett, Kate, *Sexual Pol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6).
- 박유미, “성폭력, 개인의 문제인가 사회적 문제인가?: 구약의 ‘여성 성폭력-전쟁’의 패턴에 대한 연구”, 『구약논단』 24 (2018), 125-155.
- 박유미, 『내러티브로 읽는 사사기』,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 박유미, 『오늘 다시 만나는 구약 여성』, (서울: 헵시바, 2022).
- 브라운, 로디, 『역대상』, (김의원 옮김), (서울: 솔로몬, 2006), 원제는 Braun, Roddy, *1 Chronicles*, (Waco, Texas: Word Books, 1986).

- 윌키, 브루스 K., 프레드릭스, 캐시 J., 「창세기 주석」, (김경열 옮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원제는 Waltke, Bruce K., Fredricks, Cathi J., *Genesis :a Commentary* (Grand Rapids, Mich.: Zondervan, 2001).
- 웬함, 고든, 「창세기 16-50」 (박영호 옮김), (서울: 솔로몬, 2001). 원제는 Wenham, Gorden J., *Genesis 16-50* (Waco Texas: Word Books, 1987).
- 이주아, “비혼과 비출산의 시대, 기독교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와 생물학적 모성 담론에 대한 여성주의 기독교교육 방안”, 「기독교교육정보」 74 (2022), 1-31.
- 임효명, “성폭력 조력자들 연구”, 「구약논단」 83 (2022), 188-230.
- 천사무엘, 「창세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 최란, “은/오프를 넘나드는 남성연대와 성폭력”, 「여성이론」 제40호(2019), 210-219.
- 캐롤 A. 뉴섬, 샤론 H. 린지 엮음, 「여성들을 위한 성서주석: 구약편」, (이화여성신학연구소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원제는 Newsom, Carol A., & Ringe, Sharon H., *Women's Bible Commentar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8).
- Andreasen, Niels-Erick A., “The Role of the Queen Mother in Israelite Society”, *CBQ* 45(1983), 179-194.
- Block, Daniel I., “Marrige and Family in Ancient Israel”, in *Marrige and Family in the Bible World*, ed. Ken M. Campbell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03).
- Bridge, Edward J., “A Mother's Influence: Mothers Naming Children in the Hebrew Bible”, *VT* 64 (2014), 389-400.
- Fuchs, Esther, “The Literary Characterization of Mothers and Sexual Poltics in The Hebrew Bible”, *Semeia* 46 (1989), 164.
- Jero, Christopher, “Mother-Child Narratives and the Kingdom of God: Authorial Use of Typology as an Interpretive Device in Samuel-Kings”, *Bulletin for Biblical Research* 25.2 (2015), 155-169.
- Victor H. Matthew, “Marrage and Family in the Ancient Near East”, in *Marrige and Family in the Bible World*, ed. Ken M. Campbell,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03).
- Meyers, Carol, “Returning Home: Ruth 1.8 and Gendering of the book of ruth” in *A Feminist Companion to Ruth*, ed. Athalya Brenner, (Shffield: Shffield, 1993), 85-114.
- _____, “The Family in Early Israel”, in *Families in Ancient Israel*, (Louisville: Westmister John Knox Press, 1997).

- Mueller, Marry Lou, "Three Mothers and the Will of God", *U.S. Catholic* 61 (1996), 38-40.
- Perdue, Leo G., "Household, Theology, and Contemporary Hermeneutics", in *Families in Ancient Israe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7).
- Rice, Gene, "A Great Woman of Ancient Israel (2 Kings 4:8-37; 8:1-6)", *The Journal of Religious Thought* 60-63, (2008-2010), 69-85.
- Schneider, Tammi J., *Mothers of Promise- Women in the Book of Genesis*, (Grand Rapids, Mich.: Baker Academic, 2008).
- Webb, Berry G., *The Book of Judges*,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2012).
- Willis, Joyce, "Conversation in the Succession Narrative of Solomon", *VT* 61 (2011), 133-147.

검색어

어머니, 딸, 아들, 어머니의 부재, 어머니의 역할

[ABSTRACT]

The Influence of a Mother's Absence on Her Daughter: A Study of the Role of Mother in Daughter in the Old Testament

Youmee Park
Anyang University

In the Old Testament, we discover that mothers are frequently absent when daughters are in trouble, and that the mother's absence make it more difficult to solve the difficult situations the daughters encounter. This paper attempts to expound the mother's role and how the daughter's situation might have improved if the mother helped her daughter as she helped her son, through a study of the story of a mother helping her troubled son in the Old Testament. In Chapter 1, the research purpose, research scope, and method are presented. Chapter 2 reveals the phenomenon of the mother's absence in the stories of daughters in trouble: the rape of Dinah (Genesis 34), the rape of the daughters of Shiloh (Judges 19-21), and the rape of Tamar (2 Samuel 13). In Chapter 3, the mother was observed actively helping her son. Here, we review the stories of Sarah and Isaac (Genesis 21), Rebekah and Jacob (Genesis 27), Bathsheba and Solomon (1 Kings 1), and the lady of Shunem and her son (2 Kings 4).

As a result, we note that the four mothers actively voiced and acted for the benefit of their sons, confronting and cheating on their husbands. Looking at the four mothers who actively intervened in their

www.kci.go.kr

son's problems, we can see that in the Old Testament times, mothers had authority in the family and were protectors and nurturers. Therefore, it is not correct to assume that the mother's absence in the case of the daughter in trouble is due to the culture in which the mother cannot play a role as a guardian within the family. Chapter 4 examines the reasons for the absence of mothers for daughters. The first reason is the patriarchal society's preference for sons. In this era, the mother's most important task was to give birth to, protect, and nurture a son who would inherit the family line, so they would not pay attention to the relationship between daughter and mother. The second is a theological reason. The characteristic of the story of a mother for her son is that they were supported by God. And God's support made the texts positively evaluate the mother who actively went out for her son. In consequence, caring for sons, not daughters, was thought to be an important task given to mothers by God. In Chapter 5, in conclusion, this study claims that women's solidarity is essential. First, in light of this study, we suggest that if mothers had helped their daughters as they had helped their sons, the daughters' situation would have been much better. Second, there are examples of fathers and mothers helping their daughters in the New Testament, and Jesus healed their daughters of illness and demon possession at their request. Through the example of the New Testament, we can see that daughters can receive help and change their lives if parents help them. Therefore, support and solidarity for women are absolutely necessary to solve the problem of the church where women are often discriminated against.

key words

Mother, Daughter, Son, Mother's absence, The role of mother

투고일: 2023년 04월 10일
심사일: 2023년 04월 30일
게재 확정일: 2023년 05월 28일

www.kci.go.kr